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 (Pentecost Sunday)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 입 당 | 예물 준비 | 영성체 | 파 견 |
|---|---|---|---|
| 145 (임하소서 성령이여)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166 (생명의 양식) | 142 (오소서 성령이여) |

### 제 1독서 | 사도행전 2,1-11

###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좌)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우)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좌)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 제 2독서 | 갈라티아서 5,16-25

### 부속가 |

<2독서 후에 다함께 부속가를 바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복음 | 요한 20,19-23

## Today's Gospel, <John 20,19-23>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oors were locked, where the disciples were,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Whose sins you forgive are forgiven them, and whose sins you retain are retained."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교부들의 성경 주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힘 아래 계셔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순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불경한 행동으로 성령을 쫓아 버립니다.

- 아타나시우스「축일 서간집」4,4

## 성령강림 대축일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유다교의 축제인 오순절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사도 1,14)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파스카 후 오십 일이 되는 날에 시작하는 축제였습니다. 유다교의 다양한 축제 가운데 오순절은 특별히 밀의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레위 23,15-21 참조)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 있던 이들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는 이미 성령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이래로, 숨, 바람, 영은 모두 같은 낱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12,4-6)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주님입니다. 곧, 한 분에게서 오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분은 결국 한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과 성격과 환경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활동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공동선은 공동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한 힘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공동체로, 공동선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는 개인의 유익도 함께 생각합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을 애써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하여 공동선을 위하여 주어지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Fr.허규 베네딕토>

##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성령과 함께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때부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셨듯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인 삼위일체의 생명,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지혜, 통찰, 식견, 지식, 용기, 공경, 경외(성령 칠은)‘를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행하는 모든 성사의 효력을 보장해 주시고, 진리를 믿거나 가르치는 데 그르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회 안에 머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례와 기도,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 가만히 그 안에 잠기다 보면 나를 한시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나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분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꼭 숨어 있는 쪽은 성령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였는지 모르니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 공지 사항

**1.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기간: 5월 12일(주일) ~ 6월 30일(주일) (총 8회)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2. 첫영성체 교리반 안내**

- 일시: 7월 7일(주일)~ 28일(주일) (총 4회)
- 교리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7살 이상 학생
- 첫영성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PDF 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주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Sydney ME 14차 주말 안내**

- 일 시: 7월 12일 18:00 (금) -14일 17:00(주일)
- 장소: St Joseph Centre, 33 Barina Downs Rd, Baulkham Hills NSW 2153
- 신청비: $600 (2인)
- 문 의 : 유정애 아녜스 0433-700-801

### | 미사 참례자 수 |

| | | |
|---|---|---|
| 4월 28일 | 유아·청소년: 24명 | 성인: 48명 |
| 5월 5일 | 유아·청소년: 17명 | 성인: 51명 |

### | 우리들의 정성 | (5월 11일 ~ 5월 17일)

| | | | | |
|---|---|---|---|---|
| 봉 헌 금 | $275 | | | |
| 교 무 금 | $650 | | | |
| 구민식 | 권묘순 | 김요한 | 김정수 | 남궁영근 |
| 서진원 | 손재호 | 안영규 | 양홍석 | 윤현태 |
| 이국원 | 이지영 | 장호훈 | 주정자 | |

###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 | |
|---|---|
| 화 | 저녁 7시 |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br>P/W: 69g58g | |

### | 전례 독서 봉사자 |

| | |
|---|---|
| 이번주 (5월 19일) |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 다음주 (5월 26일) |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리보 |

### | 기도 지향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 | |
|---|---|
| 이번주 (5월 19일) | 마르코반 |
| 다음주 (5월 26일) | 마태오반 |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